

#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 익산시, 저소득 1800여가구 한 가정당 20만원씩 지급

익산시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1800여가구에 난방비를 가구당 20만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사와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자격을 확인 후 4월 14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1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 “교직원의 헌신·노력 감사”

### 군산대,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1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군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이 주최한 이 포럼은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에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과 오정근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장 교무위원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오정근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장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 구축에 쏟은 교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군산대학교만의 특색있고 탄력적인 유연한 학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과포럼은 ICC기반 특성화 대학부제, 전공/교양/교수역량 강화, 성과관리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였고, 각 분야 간 연계성을 통한 실무능력 및 융합형 사고를 지닌 인재양성 비교과 프로그램(크로스-옴니버스 융합프로그램/영상Track, 드론Track, 자율주행Track)의 우수작품을 대학 본부에 장기간 운영하여 교내구성원과 신입생에게 군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군산대학교는 융합교육혁신의 핵심 전략을 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제, 수요자중심 교육혁신, 공유·협력·체용형 교육혁신, 진단기반 교육혁신으로 삼고, 교육환경 등 인프라 확보 및 구축, 학생살리기 기반 학생 주도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산 융합협력형 교양교육 운영, 대학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쓰면서, 국립대학의 성공적인 혁신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신청·접수

군산시는 16일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마을 3곳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고, 자발적·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과소화마을의 주민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단계로 마을당 1,000만원 규모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대상지 2곳(옥구읍 어은마을, 회현면 죽동마을)을 선정했으며, 마을공동체 복원 역량강화, 꽃길 조성, 소르텐 농업 설치 등을 추진해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만들기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2023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20일부터 과태료 체납징수 및 변호관 영치 활동을 통해 기존 납부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개 팀 3명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하여 과태료 현장 징수 및 변호관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전담반은 체납 차량 분포 지도를 활용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을 추적하여 변호관을 영치한다.

작년에 변호관 20대에 체납액 3억6000만원을 영치하여 7,600만원을 징수하고 변호관 160대를 교부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변호관 영치 시 과태료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변호관을 교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포스트코로나시대 국제교류 서막 열다

### 김미정 부시장 등 대표단 대만 방문... 두 도시 간 교류협력·수제맥주 협력사업 본격화

군산시는 김미정 부시장 등 대표단이 함께 지난 10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만의 대표축제인 ‘핑시(平溪) 천등축제’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베이시(新北·New Taipei)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관광·체육·축제·먹거리사업 등의 담당자로 대표단을 구성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실질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이다.

시 대표단은 먼저 신베이시청을 방문해 체육교류 협력사업 건담을 진행했다. 세계육상경기연맹(AAF) 공식인증을 받은 마리나대회를 보유한 두 도시는 향후 상호 선수단 초청 참가 및 대회운영 지원 등 교류협력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마치고 추진 시기 및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23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준비 중인 시는 신베이시 대표 수제맥주공장인 TAIWAN HEAD BREWERS를 방문해 사업현황 청취, 시음을 하고 양 도시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빠른시일 내 수제맥주사업 대표자 간 업무모임을 추진하고 군



대만의 대표축제인 핑시(平溪)천등축제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베이시(新北·New Taipei)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산 수제맥주페스티벌에 신베이시 수제맥주 홍보부스 운영 및 참가와 군산맥아를 활용한 협업제품 생산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살날을 마무리하는 정월대보름, 핑시에서 새해 소망을 담아 천등을 하늘로 띄워 올리는 타이윈의 전통행사인 천등축제에서 김 부시장은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시장, 타이베이(臺北)·타오위안(桃園)·지룽(基隆)시장, 타

이완 주재 외국사절과 함께 기념행사 무대에 올랐으며, 대표단도 263명의 귀빈과 함께 100개의 천등을 띄워 신베이시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김 부시장은 “양 도시는 역사·문화와 도시 인프라 등 유사점이 많다. 폐광촌과 철길 전통을 엮어 탄생한 천등축제는 ‘시간여행축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지역 농산물가공 효율성 강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16일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생산 체계를 갖춘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 설비 신규 설치와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직접 안전하고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 생산해, 공공급식과 로컬푸드에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레토르트 살균기, 자동피우치기, 초저온 미분쇄기, 입자분별기, 스틱포장기 등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장비를 추가 설치해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안전강화 및 효율적 동선을 위해 가공사업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경에는 내부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잼류, 제과제빵류, 쌀조청 등 3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인

이 직접 생산한 가공제품의 판로확보 및 판매강화로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높기에 힘써주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농업인 공동이용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 품목을 다양화하고 지역내 소비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온라인 1130 독서습관’ 큰 호응

익산시가 함께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온라인 독서파트너가 되어줘 큰 인기다.

영등시립도서관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온라인 독서활동이 독서습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30 독서습관 프로젝트’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상에서 하루에 한번(1日) 책읽기(1讀)를 30일간 인증하며 개인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함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익산 북돋움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5회에 걸쳐 283명이 참여했다. 매일 독서인증 한 참여자가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올해 ‘1130 독서습관 프로젝트’는 2월 ~ 12월 격월간으로 6회에 걸쳐 추진하며, 2월에는 초등 및 일반어린이 70명이 신청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편 영등시립도서관은 생활 속 책 읽기 저변 확대를 통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구현을 위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BOOK코너 △어린이 전집 대출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